

녹색돌풍에... 더민주 단체장들 당적 문제 고심

호남 민심 국민의당에 쏠리는데 더민주 원내 1당 '부담'

행정 국비지원 국회 협조 필수... 2년뒤 지방선거 '선택' 기로

녹색 돌풍이 휩쓴 호남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당으로 쏠린 호남 민심의 흐름이 분명히 나타나는데다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이 같은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거기에 지역 발전과 그에 따른 국비 지원 등에 있어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이들 단체장들이 당장 당적 변경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선택'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지역정치권의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윤창현 광주시장의 장고 끝에 당적을 유지했지만, 8대0으로 대변된 광주 민심, 안전숙 국민의당 공

동대표와의 관계 등을 감안할 때 또다시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됐다.

윤 시장은 14일, 광주 5개 구청장과 간담회를 열고 4·13 총선 이후 시·구청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총선결과로 드러난 민심과 정치환경의 변화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빈틈없는 시·구정을 펼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에서는 윤 시장이 참여한 행사였음에도 그 발언내용을 발제한 보도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다만, 윤 시장과 5개 구청장들이 나눈 이야기들을 한 데 묶은 내용을 보도자료 형식으로 제공했다. 아예 윤 시장의 행보에 정치적 해석이 곁들여질 수 있는 여지를 없앴 것이다. 그 만큼 시장의 당적이 예민한 시기가 됐다는 얘기가

윤 시장을 비롯해 광주 구청장들의 복잡한 심경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 보도자료에 담기기는 했다. "시민들께서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과 광역·기초단체장들의 소속 정당이 달라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년 대선에서의 정권교체, 광주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서는 뜻이 다르지 않다고 판단한다"면서 "여야를 불문하고 초당적인 당정 협업체제를 가동해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지역 현안들을 풀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적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 둔 윤 시장과는 달리,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꾸준히 더민주 잔류의사를 표명해왔다. 이 지사는 지난해 말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분,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의 탈당 등이 이어지자 송·신년 기자회견에서 "당적을 변경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월에도 "난 당적을 변경할 생각이 없다. 당적을 바꾸는데 게

을 정도"라며 더민주 '지킴이' 역할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14일 광주·전남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에게 문자메시지와 축전을 보내 당선 축하하고 지역 균형발전 등에 기여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지사는 이날 당선자들과 전화를 통해 "당선 축하드립니다. 야권 재편과 통합, 이를 통한 정권 교체, 지역 균형발전과 빈부격차 완화에 힘써주시길 바란다"며 "광주시와 함께 곧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소속이었다가 총선 직전 입당한 김준성 영광군수를 포함해 대부분의 광주·전남 기초단체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국민의당 소속은 발기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강진원 강진군수, 김성 장흥군수, 재선거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김성환 광주 동구청장 등이 있다.

윤창현기자 chadol@kwangju.co.kr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심야 휴식·수면 방해 조명 규제

광주시, 빛공해 방지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앞으로 광주지역에서는 심야에 휴식과 수면을 방해하는 지나친 밝기의 조명이 규제된다.

광주시는 "빛 공해를 차단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명에 의한 수면 장애,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광주일보 2월15일자 7면)에 따른 것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안)에는 광주시 전역(501.19km²)이 포함된다. 그 지역은 ▲제1종 보전·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361.91km²) ▲제2종 생산녹지지역, 생산·계획관리지역(31.93km²) ▲제3종 주거지역(74.78km²) ▲제4종 상업·공업지역(32.57km²)으로 세분화됐다.

관리구역 설정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과 토지이용 현황,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결과,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빛공해 민원발생 현황 등이 반영됐다.

앞으로 조명기구는 조명환경관리구역별로 '빛 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체육공간 등) ▲광고조명(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 ▲장식조명(건축법에 따라 연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건축물,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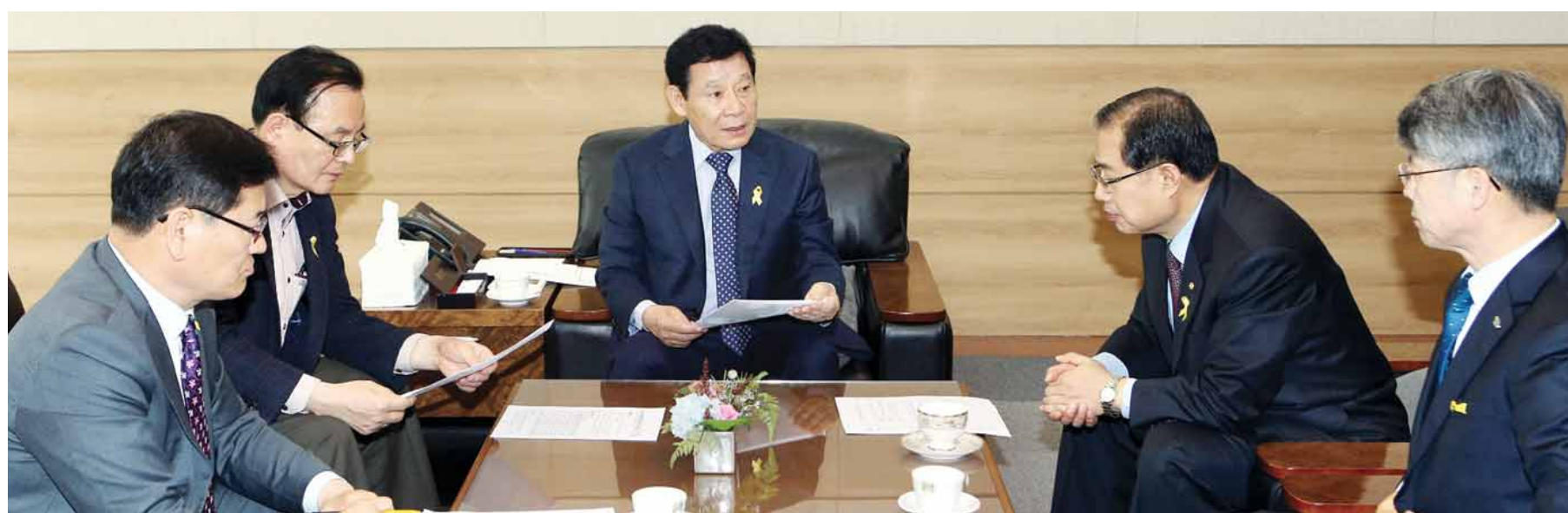
단,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전에 설치한 조명기구는 5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지정 후에 설치하는 신규 조명기구는 바로 빛 방사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에 대한 시민과 구청의 의견수렴 결과를 검토한 후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안으로 최종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은 15일부터 30일까지 구청 홈페이지 또는 구청 환경부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근 야간 조명기구 급증에 따른 빛공해 민원을 예방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14일 오전 광주시청 접견실에서 윤창현 광주시장(가운데)이 홍성호 동구청장(왼쪽), 임우진 서구청장(오른쪽), 송광운 북구청장(가운데), 민형배 광산구청장(가운데) 등 광주지역 구청장들과 20대 총선 이후 시·구청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더민주 소속인 윤 시장과 구청장들은 국민의당 당선 의원들과 초당적 협력을 이루자는 의견을 모았다. /연합뉴스

광주시·전남도의회, 더민주-국민의당 경쟁체제

광주 12-8석, 전남 30-24석 ... 원구성 주도권 다툼 심화될 듯

국민의당이 '호남 제1당'이 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 지방의회는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의 두 야당 경쟁체제가 형성되게 됐다.

국민의당 창당과 이번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지방의원들이 국민의당으로 입당하면서 양당이 지방의회를 양분한 것이다.

14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광주시의회 의석 분포는 더민주 12석, 국민의당 8석, 무소속 1명이다. 전남도의회는 더민주 30석, 국민의당 24석, 새누리당 1석(비례), 무소속 2석이다.

의석수로 보자면 더민주가 국민의당보다 많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압승해서 지방의원들의 추가 탈당·입당 등 의석수 변화 가능성도 배제 못 한다.

특히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의장단 일부가 국민의당 소속이다. 광주시의회는 조영표(남구) 의장과 문태환(광산2) 부의장이, 전남도의회는 명현관(해남1) 전남도의회 의장, 장일(진도) 부의장 등이 국민의당 소속이다.

이처럼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분화되면서 의회 내에서 주도권 다툼이 심화될 것

으로 보이며, 하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 원 구성을 놓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또한 집행부와 미묘한 관계도 형성될 수 있다. 특히 광주시장, 전남지사도 당적이 다른 국민의당의 공세가 어느 정도 예견된다.

단체장과 당적 동일 여부를 떠나 지방의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전략적 제휴와 비판도 있을 수 있다. 2년 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다. 아울러 광주·전남 지역 기초의회도 양당 체제가 형성돼 있는 만큼 현역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장들과의 갈등도 예상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과거 더민주 일색이었던 의원들이 두 개 야당으로 나뉘어지면

서 사활을 걸고 지방권력 투쟁을 할 것"이라며 "국회의원, 단체장과의 역할관계가 묘하게 형성돼 있어 어느 의회보다 정치적으로 역동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15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해 26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04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회의는 상반기 전남 도정 및 교육행정 현안에 대한 대집행부 질문을 실시하는 회기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질문을 실시하고 집행부 답변을 듣는다.

이번 회의 중 안건은 총 18건으로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 '전라남도 소상공인 경쟁력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처리된다.

최권기자 cki@kwangju.co.kr /윤창현기자 chadol@kwangju.co.kr

"동구, 대한민국 문화중심으로 부활시킬 것"

김성환 광주 동구청장 취임

4·13 재선거에서 당선된 김성환 광주 동구청장이 14일 취임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동구청 6층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기쁨에 앞서 동구의 영광과 부흥을 이끌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과반이 넘는 지지에 담긴 뜻 잊지 않고 문화 융성과 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동구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등 문화수도 조성사업으로 맞이한 기회를 잘 살려낸다면 다시 광주의 중심, 대한민국 문화중심으로 부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화전당 주변 활성화, 도시재생, 재개발·도시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청장은 보성 출신으로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전남도청을 거쳐 국무총리실, 청와대에서 22년간 지방과



4·13 재선거에서 당선된 김성환 신임 광주 동구청장이 14일 오전 광주 동구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광주시 동구청 제공>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사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시석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SKY in Seoul

초혼		추천회원	재혼	
남	여		남	여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8~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의사, 변호사
시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아나운서, 회사원	26~41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공무원, 교사,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대기업 간부
삼성, 현대, LG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회사원, 자영업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무출산 여성 희망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사, 영양사	26~42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해운동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팬션 매매

새 주인을 찾습니다

아름다운 팬션 코트에 영입중

- 70~80년된 벚꽃, 소나무, 백일홍, 편백, 은행, 느티나무 50여그루 조경
- 잡종지 15,688㎡ (4746평) 전 1,985㎡ (600평) 총 5,346평
- 편도 1차선 지방도 200m 도로점 (매인 3000평 분할가능)
- 무안공항 고속도로 광산IC 15분/문평IC 5분
- 실버타운, 연수원, 수련원, 대안학교 가능

주소 | 함평군 대동면 대동길 569
금액은 현지 답사후 상의 결정

H. 010-3119-6952